

## 고신 목회자들 “탄핵 부당… 손현보 목사 구국운동 지지”

국회 소통관서 시국선언 기자회견

반국가 세력 막으려는 세력 사이 체제 전쟁

거대 야당, 탄핵 남발 등으로 국가운영 방해

자유민주 지키느냐 전체주의 가느냐 갈림길

예장 고신 측 목회자들이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나라를 사랑하는 예장 고신교단 목회자 일동’ 명의의 탄핵 반대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 선언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부당함을 전명하며, 같은 교단 동역자 손현보 목사의 ‘세이브 코리아(Save Korea)’, 구국운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거대 야당인 입법부가 탄핵남발과 입법 독재로 국정을 좌우하며 국가운영을 방해한 것은 헌법의 정도(正道)를 벗어난 월권이며

권력찬탈 시도”라며 “이는 엄청난 불법이며, 망국적 내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과 이를 경계하고 막으려는 세력 사이에 치열한 체제 전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따른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이번 비상계엄은 전 국민에게 나라의 심각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알린 계몽령”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fare)이라는 현대전에 접어들었다. 중국이 전개하고 있는 초한전(超限戰)과 삼전(三戰)은 한반도 안에서 현



예장 고신 측 목회자들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주최 측 제공

재 진행 중”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태는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심각한 비상시국이고 국난(國難)에 처해 있다”고 했다.

이들은 “공수처의 대통령 불법체포는

법치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추잡한 판사소평, 법원소평과 대통령 불법 체포로 자유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향한 불법놀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받으리”고 했다.

이어 “법원은 국회의 탄핵소추와 기소의 태생적 위법성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에 한정하여 적법성과 위법성을 일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비상계엄 전후로 관련된 입법부와 행정부 쌍방을 모두 철저하게 정밀 조사하는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라”고 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검증 거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성불가침의 불

용성 헌법기관이 아니”라고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특정 정치 세력의 선동과 조작으로 오도(誤導)하고 있는 종북(從北), 종중(從中) 전체주의 체제로 나갈 것인가의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의 군사시설과 미군의 잠수함 및 항공모함, 국정원 주변을 활영한 중국인을 간첩범으로 처벌하는 법 제정을 거부하는 미국적 방해공작으로 국가안보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을 속이고, 이간질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계엄령 공포신을 조장하고 계엄령을 내란으로 몰아 정

권을 찬탈하려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염된 증거로 재판을 강행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소추 건을 즉각 각하하라”며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그가 대통령 직을 탄핵받아야 할 만큼의 위법행위가 아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복귀시키라”고 촉구했다.

김진영 기자

## 농어촌 교회 목회자 5명 중 1명, “10년 후 교회 성장” 기대

5명 중 2명은 “희망 없다? 목회자 하기 나름”

주일 출석 30명 미만 교회가 60%

교역자 수는 ‘담임목사 1명’ 83%

교인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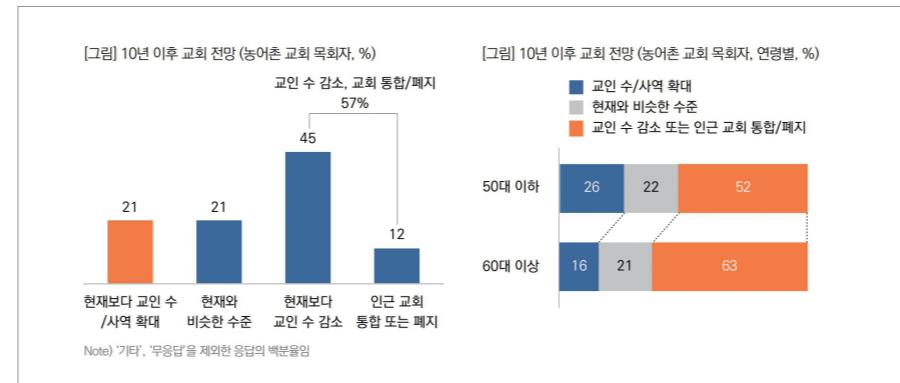
농어촌 교회 목회자 5명 중 1명은 10년 후 자신이 시무하는 교회가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데이터연구소(목데연)는 예장 통합총회가 지난해 2~3월, 교단 소속 농어촌 교회 담임목사 1,835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했던 ‘농어촌 교회 및 목회자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를 최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농어촌 목회자의 절반 가까이(47%)가 한때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해

“젊은이 선교 동원 등 체계 마련 위해 노력해야” 》 7면

싱어송라이터 한웅재 목사, 찬송가 모음집 발매 》 23면



©목회데이터연구소

일예배 출석 인원은 ‘10~19명’이 25%로 가장 많았다. 50명 미만인 교회가 76%, 30명 미만인 교회는 60%로 10곳 중 6개 교회에 해당했다.

담임목사를 포함한 교역자 수는 ‘1명’이 83%로 가장 많았다. 담임목사 흠로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가 대부분인 것이다.

주일예배 참석자들의 연령은 ‘60~70대’가 6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80대 이상’이 10%로 높았는데, 주 연령대가 ‘60대 이상’이라고 응답한 교회의 비율은 86%에 달했다.

시무교회의 가장 큰 외부 문제로는 ‘농어촌 인구 고령화’(82%)와 ‘농어촌 인구 감소’(80%)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

다. 내부 문제로도 ‘교인 감소’(62%)와 ‘교인 고령화’(58%)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목데연은 “농어촌 교회의 위기는 단순한 교인 수 감소를 넘어 농어촌지역에 신앙 공동체 자체가 사라질 위험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한국교회 공동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한국교회는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며 사명을 이어 왔다”며 “이번 조사에서 5명 중 1명꼴로 농어촌 목회자가 10년 후 시무교회가 성장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지금이야말로 농어촌 교회가 지닌 강점을 살리고, 도시 교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지속 가능하고 강한 신앙 공동체를 구축해야 할 시기”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 한교총, 2025 한국교회 교단대항 목회자 축구대회 개최한다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종혁 목사, 이하 한교총)이 교류협력 위원회 주관으로 ‘2025 한국교회 교단대항 목회자 축구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는 축구대회는 목회자 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로, 6월 2일 오전 8시 천안축구센터에서 열린다. 참가 신청은 3월 31일 오후 5시까지이며, 참가비(80만 원) 입금 순으로 선착순 접수가 진행된다. 대진 추첨은 4월 25일 오후 2시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참가 자격은 목회자로 구성된 교단 팀이어야 하며, 목사 안수를 받은 자만이 출전 가능하다. 또한, 선수 자격과



지난 2023년 열린 한국교회 교단대항 목회자 축구대회 ©한교총

## 용인에 다시없을 4억원대! 일반분양 아파트 EFETE 용인 둔전역 에피트

1877-3393

에피트는 HL디앤아이한라가 선보이는 새로운 아파트 브랜드입니다

### 용인 둔전역 에피트 PREMIUM 6

#### PREMIUM 1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대표할 반도체 클러스터(예정)배후 주거단지

#### PREMIUM 2

서울,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 도로망 분당, 광교, 동탄 약 30분 거리

#### PREMIUM 3

마구산 자연 영구 조망권(일부세대) 숲, 공원으로 둘러싸인 쾌적단지조성

#### PREMIUM 4

분당선 환승 에버라인 둔전역 생활권 둔전역 생활 안심교육 인프라

#### PREMIUM 5

1,275세대 대단지 자부심을 높일 디채로운 커뮤니티 시설 조성

#### PREMIUM 6

대한민국 최초 서울대 기술지주 자회사 앱티마이저 프리미엄 교육 서비스 제공

#### 앱티마이저 프리미엄 교육 서비스

AI학과 적성검사 / 1:4 소수 정제 멘토링(서울대 대학생 진로 상담)  
4차원 체험교육 / 진학상담 학부모 특강

불황에도 ‘용인 둔전역 에피트’ 계약 순항!

국평 84㎡ 4억원대 일반분양아파트

“비결은 계약금 5% 조건 변경”

선착순  
100만원 등호지정

無  
청약통장

무제한  
전매  
2025년 3월 10일부터

84타입  
4억원대  
68/84/101타입

